

‘부처님 딸’ 된 나이팅게일 후예들

국군간호사관학교 불자 생도 수계법회...일면 스님 35명에 수계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선서의 일부다. 이 선서는 불교의 오계 중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제1계와 내용이 상통한다. 나이팅게일의 후예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부처님 딸’로 거듭났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불자 생도 및 간부들은 6월 24일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이트(조계종)를 수계하는 불자는 35명으로 간호사관 생도 24명과 간부 11명이다.

이날 일면 스님은 “오계를 불자가 아닌 누구라도 진실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

을 것”이라며 “이 순간만이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간호사관생도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상대방을 해(害)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노무에 쫓기는 포수 이야기를 하며 생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나무꾼에게 사슴이 다가와 포수에게 쫓기고 있으니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다. 나무꾼은 사슴을 가엾게 여겨 바위 뒤에 숨겨준다. 그러자 곧 포수가 나타나 사슴을 찾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무꾼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포수에게 거짓말을 해도, 혹은 진실을 말해도 오계 중 어느 하나는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면 스님은 “어떤 선



6월 24일 열린 국군간호사관학교 수계법회 모습.

택을 한다 해도 나무꾼은 오계를 어기는 것이겠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듯이 생명을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형편하지 않느냐”며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면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대라면 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죽을 목숨을 살리는 일일수도 있

다”고 말했다.

이날 세 번째로 계를 받았다는 홍예지(23) 생도는 “우리 간호사관생도들은 환자를 보살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계 중 제1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라 가끔 수계받을 당시의 다짐이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계를 받곤 한다”며 “오늘 일면 스님의 말씀을 듣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오계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그동안 주지가 공적이었던 자운대 의무부대 호국약천사 주지 임명식도 함께 열렸다. 약천사 신임 주지로 임명된 동화사 교무 도일 스님은 1985년 일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2년 동화사 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중국 운남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손효선 기자

“총 내려놓고茶具 들어요”

차문화협회, 옥천 2201부대서 다도교육

군인들을 위한 다도(茶道)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옥천 2201부대(이하 옥천 연대) 장교 및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6월 20일을 시작으로 매주 1번씩 이뤄진다.

평소 독실한 불자인 2201부대 최경식 연대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다도 교육은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 옥천분회 강경미 차예절 전문지도사(법)의 지도로 진행됐다.

첫날 교육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참가한 장교 등 간부는 9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경식 연대장은 “아직 많은 홍보를 하지 못해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 많은 병사들이 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인사법과 다기의 명칭, 차의 9가지 덕(德) 등을 익혔다. 강경미 사범은 상황에 맞는 다도 인사법에 대해 설명한 뒤, 차를 마

라 마실 때 쓰는 찻잔(茶盞), 앞차용 탕수를 식힐 때 사용하는 숙우(熟盂) 등 다기의 명칭과 쓰임새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또한 ▲머리를 맑게 해 준다 ▲눈을 밝게 해준다 ▲귀를 밝게 해준다 ▲밥맛과 소화력을 촉진시켜준다 ▲술을 깨게 해준다 ▲잠이 적게 해준다 ▲갈증을 멎혀준다 ▲피로를 풀어준다 ▲취우나 더위를 막아 준다 등 차의 9가지 덕을 설명하며 다도를 배우는 이유를 명확히 짚어줬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강하영 작전과장은 “군대에서는 군대만의 예절이 있는데, 군대 예절과 전통 예절은 약간은 다른 면이 있어 놀랐다”며 “나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다도를 배우면 자연스레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연대는 장교 및 간부들의 다도 교육과 함께 전 사병을 대상으로 다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예불하는 노루 보셨나요?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에 가면 예불하는 노루가 있다? 6월 13일 어미 많은 아기 노루가 견불사에 찾아들었다. 보덕 스님을 어미처럼 따르고 있는 아기 노루는 스님을 따라대오면서 매일 아침, 저녁 예불에 참석하고 있어 화제다. 야생 노루 ‘호야가2’ 시간이나 남아있기도에 참석하고 있다는 일소문에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055)922-3331

해철 충청지사장

헬기 동원 신축불사 ‘구슬땀’

구절사, 헬기로 자체 운반·조립식 공법 도입

시공사의 소장과 직원들이 사찰에서 숙식하며 대웅전 신축 이전 불사를 하고 있어 화제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동리에 위치한 구절사(주지 혜도)는 석장산 해발 623.6m 자락에 위치한 옥천 방향에서는 접근로가 가파르고 산세가 험할 뿐 아니라, 대진 방향에서는 걸어서 2-3시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다. 자재를 옮길 방법이 없어 공사가

불가능했던 구절사(전통사찰 제43호)에 6월 2일부터 사업비 2억원(국·도비 1억6000만원, 자비 4000만원)을 들여 전통사찰 구절사의 법당(49.5m) 신축 이전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에 필요한 기와와 목재, 석재 등 120여 가량의 자재를 헬기로 운송하게 돼 공사가 시작된 것.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번 신축 불사에 사용될 기와를 동기로와선 정,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법당에 들어가는 기둥과 같은 각종 목재의 경우 현장 작업 여건을 감안, 지난 4월 청원군 가덕면에서 설계에 따라 사전 제작을 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도록 하고 있다. 완공은 7월 15일 예정.

이에 대해 혜도 스님은 “어려운 작업환경으로 여러 차례 시공사가 바뀌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옥천군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헬기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져 사찰과 신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불국토를 찾아서 | 청주 청수사

“알 지(知), 새벽 효(曉), 스님~ 안녕하세요~”

청주시 내덕동 주탁가에 중심에 위치한 청수사(회주 성관)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청수사 총무 지효(知曉)스님을 보자 아이들이 하는 인사가. 스님이 전혀 낯설지 않은 눈치다.

이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3월부터다. 청수사는 불사 당시 사회복지법인 선재원이 운영하는 ‘화엄지역아동센터’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설계했다. 그 후 1월 낙성

프로그램이 끝나 아이들이 집에 가곤 하는데, 요즘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속제도 봐주고 놀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해 엄마와 같은 손길로 보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청수사는 이 밖에도 불교 경전을 통한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수행과 보살행을 닦는 불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전법도량이기도 하다. 2004년 9월부터 개강한 강좌에서 배출한 불자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들 위한 아동센터 운영 불교기초 강좌·직장인 위한 금요법회 개설

법회를 병행한 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화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곳에는 종교를 불문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16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청수사는 365일 문을 열어 놓고 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독서·미술·영어·한자 지도 등 학교 공부에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뮤지컬 관람, 라틴댄스 교육, 리본 공예 등의 취미활동까지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지효 스님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수사는 7월부터는 저녁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효 스님은 “오후 6시가 되면

만 해도 약 350여명이다. 직장인들을 위한 금요법회도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바르게 익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지효 스님은 “주 5일근무제에 따라 주말 여가 활동이 증진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말 법회보다는 금요법회를 선택했다”며 “주말에 법회가 있어 의무적으로 사찰에 방문하기 보다는 나들이 삼아 찾을 수 있는 사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절이 대중 속으로 들어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 청수사 회주 성관 스님은 “원래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대중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들은 모두 당연한 것을 하는 것 뿐”이라며 “불교의 본 모습을 잘 계승해 대중과 어우러진 불교를 행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고무신코 만 행 화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시암슬리퍼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세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망사단화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끈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합장
 ◆ 본사, 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철야 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충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펼칠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서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은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위한 교재로 하고 선생님의 도반이시자 제자이신 보림사 회주 목산스님께서 지도 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2008년 7월 30일(목) 오후 8시부터 2008년 8월 5일(화) 오전 7시까지
- 장 소: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4동 약수길 17-1호)
- 회 비: 일반 9만원
- 접수 및 문의: 010-6332-4096
- 준비물: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돈암역 하차 정릉 청수정행 143, 162, 1012, 1013 - 대우아파트 하차 (돈암역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산 합장
 보림회 회장 장철순 합장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패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동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कukak.com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कukak.com